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 강해

한 경건한 수난자의 신앙

(시편 94:1-2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 받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시편 94편을 주해하면서 ‘악한 자들이 제길로 가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대체로 변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같이 보입니다. 세상은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악한 자의 변영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관심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고 의인의 원수를 갚아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본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왕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왕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 의로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심판하시는 이여 오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억압하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의 오심을 부릅니다(1-2절).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돌보지 않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너무 느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3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빛을 비추어 주소서”(1절).

이들은 마치 복수를 기원하는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렘 51:56).

2. 거만한 자의 자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만한 자의 환호하는 자랑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들은 약자를 억압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이들이며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만한 자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여호와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7절). 하나님은 잠깐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만한 자의 자랑을 중단시키시거나 보복해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3.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고

시인은 이 세상의 거만한 억압자에 대해 과감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8절).

시인은 예리하게 수사학적 질문을 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9절).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11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징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아실뿐만 아니라 무익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아실뿐만 아니라 무익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4. 연단의 축복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나 공의를 실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거만한 자의 죄를 열거하며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연단 받는 자들의 인내와 억압자에 대한 의로운 심판은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2절의 징벌은 죄에 대한 형벌이지 연단은 아닙니다. 연단은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4가지가 약속됩니다.

- ①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
- ② 악인은 종국에 벌을 받는다
- ③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 ④ 의인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5.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칠까”(16절).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6.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늘 보좌에서는 타락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의인을 대항한 악인들의 죄가 멸하게 될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 이시라”(22절). 시인의 확신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한 시기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태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심판날에 있을 보응을 바라보며 의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선교사 추가 파송

이재훈 박재연 선교사-마다가스카르로 -의료선교사로 활동 예정-

우리교회는 금년 교회설립기념주일(11월23일)에 파송하는 선교사로 한 가정을 더 추가하여 파송하기로 하였다. 추가되는 선교사는 이재훈 박재연 선교사(자녀: 2남1녀)로 의료후진국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진료)사역을 펼 예정이다.

이로써 금년에 파송하는 선교사는 모두 4가정(8명)으로 확정되었다.

이재훈 · 박재연 선교사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이재훈 선교사(1967년 4월16일생)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전문의 및 전임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의학석사)
- 2003년-2008년: AIM(Africa Inland Mission)-Madagascar 선교사(의료사역)

· 박재연 선교사(1966년8월28일생)

- 이화여자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대학원 임상심리학과 졸업(석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 MBTI, MMTIC 수료
- 2005년 - 2008 : AIM(Africa Inland Mission)-Madagascar 선교사(의료사역)



협동장로 · 협동목사 청빙규정 신설

당회는 우리교회 사역을 돕기 위한 협동장로와 협동목사 청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타교회에서 시무하던 장로, 목사가 부득이 우리교회로 전입 · 청빙 할때의 자격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시행키로 하였다.

· 협동장로의 자격

- ①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소속 교회에서 안수 받은 이
- ② 시무 중 처리 받은 일이 없는 이
- ③ 본 교회 등록한 지 5년 이상 된 이로 신앙과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이
- ④ 당회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이로 한다.

· 협동장로의 책임

- ① 당회에 출석하여 교회 일에 적극 협력한다.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 ② 섬김위원으로 당회원과 동등한 사역을 할 수 있다.

③ 장로선출 시 안수집사와 같은 반열에 추천될 수 있다.

④ 협동장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안식을 한 장로 신임투표시 당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 협동목사의 자격

- 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 또는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의 교수
- ② 신행일치의 삶을 모범으로 보인자
- ③ 위임목사의 목회 철학에 동의하고 협력할 자

· 협동목사의 책임

- ① 당회가 부여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서울교회 목회에 유익을 준다.
- ② 협동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안식을 한 장로 신임투표 시 당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신앙강좌 I, II 커리큘럼 변경 1년 2학기제, 평신도 신학과정으로

우리교회는 주일에 열고 있는 신앙강좌 I (강사: 김영한 목사)과 신앙강좌II(강사: 김재진 목사의 커리큘럼을 2009년부터 1년 2학기제로 하고 학기말마다 수료증을 발급하여 2년을 마치면 평신도 신학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평신도로 깊이 있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성도들의 많은 수강 바란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기간	신앙강좌 I	신앙강좌 II
2009년 1월-6월	성경론	인간론
7월-12월	기독교론	성령론
2010년 1월-6월	신론	구원론
7월-12월	교회론	종말론

고등부 친구초청 찬양집회 11월 15일(토) 오후 5시 - 601호

고등부는 사명자 대회에 발맞춰 잃은 양 찾기 및 친구초청 찬양집회를 갖는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함께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가지며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되었던 워십 댄스와 드라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장기결석하고 있는 친구들과 새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1인 3친구의 전도를 목표로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원한다.

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하는 찬양집회가 온전히 감사와 은혜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16일(주) 오후2시 101호

우리교회 사랑부에서는 사명자대회 기간 중 지체가 부자유한 자녀들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학부모와 친구들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갖는다. 하나님께 연주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아울러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호산나학교 열린바자 11월 11일(화)~12일(수)

서울교회 부설 호산나학교에서는 11월 11일(화)~12일(수) 까지 2일간 오전 10시부터 702호에서 여성 의무바자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는 경기도 가평의 아가페타운으로 이전하게 되는 호산나학교의 학생 셔틀버스 구입 기금 마련을 위해 이뤄진다.

제2회 스포셜올림픽 동아시아대회 금메달수상



호산나대학 이광철군

호산나대학 1학년 이광철(20세)군이 11월 4일(화) 대구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회 스포셜올림픽 동아시아대회 골프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이광철군은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학업과 운동 두 가지 모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이광철 학생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바란다. 아울러 호산나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영수증 모으기로 군선교 돕는다

한국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종윤 목사)에서는 대형할인마트의 영수증을 모아 군선교 사역을 돕고 있다. 우리교회도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성도들이 먼저 '영수증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본인의 영수증에 회원가입 시 약정서에 썼던 성명(혹은 전화번호 뒷자리도 가능)을 표기하여 교회 내에 비치된함에 제출하면 된다. 단 해당월에 구입한 영수증만 가능하다. 해당되는 영수증은 이마트, 홈플러스, 홈에버, 롯데마트, 그랜드마트, 농협하나로마트, GS마트, 대한통운마트, 2001아웃렛, 김스클럽, 한남슈퍼, GS슈퍼, 롯데슈퍼, 홈플러스슈퍼, 한양스토어 등이다.

한편 비전2020 운동본부에서는 우리교회에서 이 일을 도와주시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신청: 사무국)

만물이 고요와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밤의 절정 0시!

연 50일간 릴레이 기도의 엮드린 용사들이 있으니, 저들은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려고, 말씀과기도의 갑옷으로 무장한 자 들입니다. 파수군으로서 사명을 순종하며 새 하루를 열어나가는 이 시간, 지금도 사명자 대회에 흐르고 역사하고 있는 주님의 보혈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덮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인 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눈시울을 적셔봅니다. 우리의



삶속에 날마다 밀려오는 파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어, 승리의 깃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연년이 해를 거듭할수록 김치세미나의 열매들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

역들로 세계복음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지구촌 곳곳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새 생명의 고고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타락하여 현실적 정욕으로 어두워만 가오니,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붙드사 세속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기독교문화 창달에 앞장세워 주옵소서. 우리 서울교회 모든 권속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밝히고 세상을 향도하는

기도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지극히 작은일 에도 충성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 세계 평화의 기수들이 다 되게 하시어, 새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천정운 (청년1부)

매년 사명자대회 기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국가, 사회, 가족, 개인, 교회에 대한 주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맡겨진 일이 힘들다고 호소만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종운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힘들며,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이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내 육신과 정신의 의도하는 바와 달라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 명령을 따라 유럽 선교를 했듯이, 요나가 니느웨성의 회개를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갔듯이 현재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사명을 이루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청년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 청년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의 심령을 눈이 부시도록 푸르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발길이,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인오 목사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장)

참으로 이 시대의 큰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품고 기도를 쏟아내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복음의 단비가 풍부한 나라, 하늘진리를 토해내는 나라가 건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늘 복음이 성한 나라가 크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늘 산소를 토해내는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영혼 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눅 12:49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고통과 생명을 살리는 불이 없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천둥 같은 생명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과 가정과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죄와 퇴폐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고 취하고 방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늘 단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복음의 단비가 쏟아져 정직과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늘 산소가 쏟아져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회개의 날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시대의 꼭 필요한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죽어가는 시대를 깨우는 천둥 같은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향, 진리의 향을 토해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아 기쁨 감격하며 천국을 맛보는 감회가 있습니다. 발에 감추어진 하늘보화를 발견해 기쁨 감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교회입니다.

하늘 천국을 맛보고 하늘 향에 매혹되어 감격하는 목회자세미나입니다.

서울교회는 메마른 이 시대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생명의 향을 토해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현장에서 지쳐있는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주고 용서를 주고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즐겨워 봉사하시는 서울교회의 성도님! 그래서 감격하여 하늘인사를 하고 하늘 기쁨을 나눕니다. 하늘산소와 비타민을 공급하는 손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장 이종운 목사님의 진리의 영성운동, 생명운동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어 새롭게 지어집니다.

이 전국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이 민족과 교회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디아스포라부

북한복음화의 기수가 되고자!

박우주 권사
(디아스포라부)

지난 11월 1일 (토), 아가페타운에서는 2008년 사명자대회를 맞으며 디아스포라부 교사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위에서 살고 있는 탈북주민들을 초청하여 전도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탈북주민 초청 전도행사에는 78명의 탈북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박광일 전도사님의 인도로 드러진 예배와 권혁정 선교사님의 특강, 탈북자 최영일 형제의 신앙간증을 통해 탈북주민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권혁정 선교사님의 특강을 통해 탈북주민들은 '하나

간결같이 간증하였습니다.

디아스포라부 교사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고 탈북주민들은 오후에는 축구경기 및 다양한 운동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축구팀과 경평축구팀과의 축구경기를 통해 탈북주민들은 주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사실과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위대한 계획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님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을 사랑하시고, 북한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자유의 땅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천국시민양성 -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몸과 마음 다 바쳐 찬양을...

허나운 (사랑부 교사)

작년 11월 이맘때쯤, 사랑부 제1회 '천사들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기타, 피아노, 핸드벨 등 좋아하는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즐겁게 연주를 했습니다. 모든 사랑부 학생들의 악기연주와 찬양, 율동이 아름답고 예뻐지만, 주무재활원 꼬마들이 단풍잎 같은 손으로 꼬물꼬물 멜로디언을 연주하던 모습은 특히나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 주려고 사랑부에 찾아갔지만, 매주 학생들을 만나고 부대길 때마다 제가 주는 사랑보다 그들에게 받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순수하고 뜨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에도 제2회 천사들의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모두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찬양을 드



리고 싶지만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악기도 만질 줄 모르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즐겁게, 온 맘 다해 배우고 연습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핸드벨과 벨플레이트, 기타와 멜로디언, 난타, 그리고 찬양과 율동까지,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주 한주 연습을 하면서 놀랍도록 능숙하게 연주를 하는 학생들을 보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 학생들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습한 것들을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보여드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꼭 오셔서 우리 사랑부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듬뿍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랑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교회설립17주년과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우리교회 중, 고, 대학, 청년부의 특별찬양으로 준비된다.

제10회 가을 화요 정오 음악회(11월 11일)

Chamber Music Concerts with Organ

클래식 기타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이번 주 화요정오음악회는 클래식기타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로 열린다. 클래식 기타 : 김정열 선생(대전 기타 문화협회 앙상블 악장), 오르간: 오자경 선생(서울 교회오르가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 연주하며, 이날 연주할 곡은 Concerto in a-moll BWV 593(A. Vivaldi - J. S. Bach)의 4곡을 연주한다.

청년1부 총회 마쳐

청년1부(부장 김광동 집사)는 지난 주일 총회로 모여 신임 회장에 김상준, 부회장에 김진경을 선출하였다.

남선교회 연합총회 · 탁구대회

11월15일(토) 오후3시 101호(탁구대회: 701호)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3일(목) 한국장로교신학회 월례세미나를 소집한다.
- 목사안수: 김영호 선교사(러시아)가 지난 4일 서울강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내일(10일) 다시 러시아로 귀임한다.
- 특남: (1교구) 이희영, 김수영 성도(임송자 권사 장녀)
- 주간식당 봉사: 마리아전도회(11.9일) 에스더전도회(11.16)
- 금주의 식사: 황영주 집사 조삼원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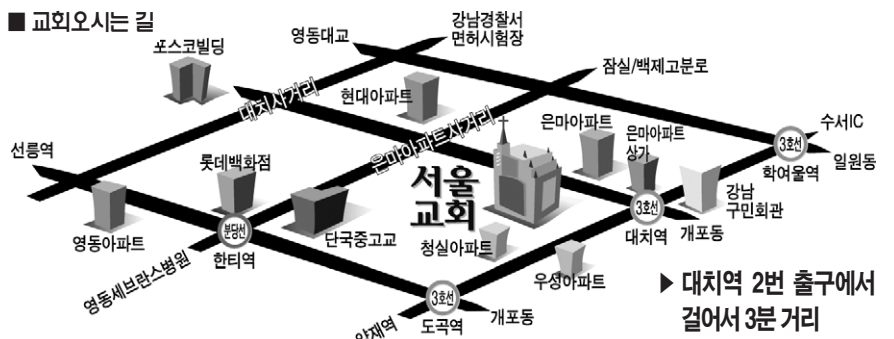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명자대회 5대 기도제목 성취되도록
2. 피택집사, 피택권사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도록
3.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 중강 및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